

## 갑진년에 몸과 마음을 잘 닦아야 2년 후에 즐거움을 누린다

소재학 교수, 2024년 청룡의 해 대한민국 국운 새로운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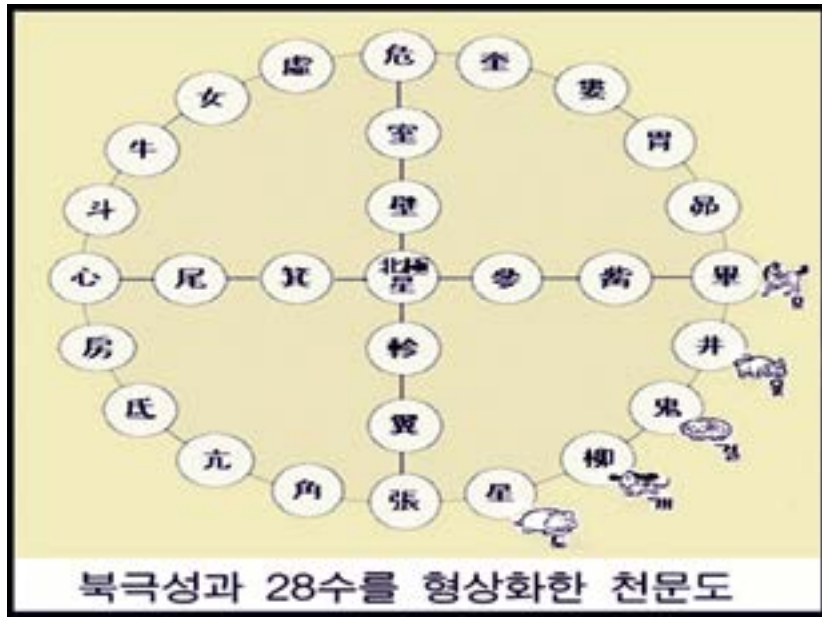
미래예측학자 소재학 교수는 청룡의 해를 앞두고 12월 19일 오후 6시 서울 리버사이드호텔 그랜드홀에서 글로벌미래포럼 제56회 미래비전 콘서트 '2024년 청룡의 해 국운 미래예측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소 교수는 "2024 갑진(甲辰)년은 갑진(甲辰)의 천간 갑(甲)이 오행(五行)에서 푸른색을 의미하고, 지지 진(辰)은 용을 의미하여 '푸른 용의 해'라고 한다. 용은 희망적인 변화를 상징한다. 그렇기에 2024 갑진(甲辰)년 청룡의 해 대한민국은 '희망을 향한 변화와 변혁의 시기'로 '혼란을 극복하며 피어나는 희망의 꽃 봉오리'라고 표현할 수 있다. 비록 대립과 갈등, 혼란은 있지만 그러한 속에서도 화합과 재도약을 위한 희망적인 기쁨이 마련되는 시기"라며 혼란 속에 희망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전문적 해석에서 2024 갑진(甲辰)년은 외형적으로 오행 목(木)과 토(土)이지만, 내면으로는 오행 화(火) 기운과 토(土) 기운이 강성하다"라고 갑진년을 분석했다. 또한 "그렇기에 아파트 가격은 하락세가 예측 되지만 일반 부동산과 토지, 흙을 활용하는 산업분야, 경제, 연예계, 예술계 등 상승세를 기대해 볼만하다"라고 하며, "반면 많은 가뭄과 대형 산불 등 화재, 폭발사고, 가뭄 중에 국지적 폭우 등으로 인한 침수, 산사태, 붕괴 등과 폭발사고, 지진 등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고, 청년층 미약 문제 등이 크게 대두될 수 있는 시기이니 가능한 대비를 통해 혹시 일어날 피해를 최소화 되길 바란다"고 2024년 각 분야 전망에 대하여 이야기 했다. [출처: 글로벌미래포럼 <https://blog.naver.com/gfcf1/223300494453>]

1904 갑진(甲辰)년에서 2024 갑진(甲辰)년까지의 공을론(弓論)과 지축 정립의 변모

적압유독 공을론에 웃놀이에 빗대어 오묘일결(五卯一乞) 단동불출이라 하였다. 모 다섯에 걸 한 번이면 웃말 낙동이 하나가 되어 한꺼번에 웃놀이가 끝나게 된다. 이를 천지비밀에 붙여 두었다. 을묘정묘기 묘신묘계묘(乙卯丁卯己卯辛卯癸卯)가 오



웃놀이에 담긴 천문사상 [http://webzine.daesoon.org/board/view\\_win.asp?bno=438](http://webzine.daesoon.org/board/view_win.asp?bno=438)

묘이며 일 겹은 세 칸을 뛰니 갑진을사병오(甲辰乙巳丙午)가 되어 웃판을 끝내게 된다. 이는 곧 삼일병화 만국통합(三日兵火 萬國統合)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삼일이 일 겹이니 갑진을사병오(甲辰乙巳丙午)가 된다. 만국통합속에 남북통합이 있음은 물론이다. 진사성인출(辰巳聖人出)이요 오미락당당(午未樂堂堂)이다.

이로써 웃판이 끝나게 되는 것이니 바야흐로 천지공 생명을 영영 놓치게 되리라. 오직 메시아 정도령을 만나 감로해인을 받아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이긴 후라야 대자대비의 신천신지라는 빛의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해설」 청룡(靑龍)은 갑진(甲辰)년을 말하는데 이는 1904년(甲辰)을 가리키는 것이고, 여상가일(女上加一)은 일곱줄 자를 위아래로 겹쳐 놓은 글자이니 이는 (七더하기) 14수를 말한 것이다. 거기에다 1배수 더하게 되면(14+14) 28수를 가리키는 뜻이니(1904+28=) 1932에서 백속 나이 하나를 공제하면(1932-1=)1931년 신미(辛未)생을 가리키는 것이고 지변거토(地

邊去土)는 따지 자에서 흙도 자를 없애라 하였으니 이(이)자만 남는다. 이는 성인(聖人)으로 나오시는 분은 1931년 신미(辛未)생이라는 것이다. 구경양희 58년은 구세주의 나이 58세인 1988 무진(戊辰)년에 진사성인출을 하게 되니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들이 깜짝 놀라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되는 것을 웃놀이에 비유하였는데 척사소목은 웃발을 말하고 동쪽으로 행방불명되었던 단지과가 동쪽 터인 간방(良方)에 이르러 다섯도 한 걸을 쳐서 네모를 두어 막동을 만들고 한모 걸로 낙동이 다 나가는 것과 같이 느닷없이 단지과가 동방나라인 땅 골 땅 모퉁이 한국땅에서 생미복불로 출현하여 마지막 판도가 오묘(午卯)년에 가서 마무리될 것이다.

오묘일결(五卯一乞)의 깊은 의미는 때를 알려주는 것이다. 1972 임자(壬子)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의 문이 열리던 해가 북방불기 3,000년이 되는 1973 계축(癸丑)년이었고 사람의 운이 열리는 해는 1974 갑인(甲寅)년이었고, 만물의 운은 1975 을묘(乙卯)년에 열리고 나니 1976 병진(丙辰)년에 황극천(皇極天)의 주인공인 주작칠성(朱雀七星) 중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진 것이다. 이것을 병진락지(丙辰落地)라는 것이고, 성경 계시록 9장 1절에 "다섯째 천사(영모님 목)가 나팔을 불 때에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無底坑)의 열쇠를 받았더라"라고 하는 것이다.

1972 임자(壬子)년에 하늘문이 열리고 나서 오묘(五卯)는 1975 을묘(乙卯)년을 지나고 12년 후인 1987 정묘(丁卯)년을 지나고 또 12년 후인 1999 기묘(己卯)년을 지나고 또 12년 후인 2011 신묘(辛卯)년을 지나고 또 다시 12년 후인 2023 계묘(癸卯)년이 말문이 다섯 번째 묘(卯)년이 되며 한걸(一乞)은 3수를 말하는데 2024 갑진(甲辰)년, 2025 을사(乙巳)년, 2026 병오(丙午)년을 가리킨다.

하늘의 역사가 동방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사이에 천간(天干), 을(乙)도 지지(地支) 묘(卯)도 동방에서 시작하여, 정묘(丁卯)년은 남쪽으로 기묘(己卯)년에 중앙으로 신묘(辛卯)년에 서쪽으로 계묘(癸卯)년에 북쪽으로 5행이 일주회하고 연수는 48년이 소요되는 것이다. 또한 말판지도(未判之圖) 오미락당당(午未樂堂堂)은 1978 황마인 무오(戊午)년에 중앙도궁(中央土宮)인 밀실에서 연단이 시작되어 1990 백마인 경오(庚午)년에 중대책임 61세까지 하 나님의 신이 거하실 백만제단을 건립하고 1991 신미(辛未)년 8월 12일에 헌당예배를 보게 되었으며 그후 12년이 지나 2002 흑마인 임오(壬午)년은 북방을 거쳐 2014 청마인 갑오(甲午)년은 동방을 거쳐 적마년인 2026 병오(丙午)년이 되면 말의 해도 5행 일주회가 되고 48년이 소요되어 말판지도오미락당당(未判之圖午未樂堂堂)이 되는 마지막 해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관심있게 알아야 할 것은 1972 임자(壬子)년에 하늘의 문이 열리던 해와 2026 병오(丙午)년까지는 선천수 55년간의 역사인 것이다. 또한 하늘의 문이 열리던 1972 임자(壬子)년은 천간(天干) 임(壬)도 지지(地支) 자(子)도 오형상 수(水)가 되고 방위는 북이 된다. 그리고 지축(地軸)이 바로 서는 2026 병오(丙午)년도 천간(天干) 병(丙)도 지지(地支) 오(午)도 오형상 화(火)가 되고 방위도 남이 되어 자오정점(子午正針)대로 지축(地軸)도 자오(午)로 바로 서게 되니 순환이 정지되는 말판지도(未判之圖)가 되는 것이다.\*

### 그때그때 마다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니 절대 예정될 수 없네

갑진년에 심승대도가 크게 열리니 태을선(太乙船=감로)을 구제하고 만국이 화합하는 원년(元年)이 되느니라. 해인을 실은 구원선(船)을 타고 왕중왕(王中王)의 기운이 떠오르니 동방 땅 해우반도(한국에서 출현한 정도령의 불사영생의 진리가 온 천하에 알려지며 반면에 죽은 후에 천간 간다는 주장을 펴는 서양의 종교는 물러가느니라. 갑진년 경오월, 궁을심승 정도령에게 가면 있느니라. 임인년에 하도(河圖)를 세워 심승대도를 증거하게 되면 갑진년에는 천하 만민을 구제하고 만국이 화합하는 원년(元年)이 되느니라. 진사(辰巳=갑진 을사)에 호운을 맞게 되나니 정도령은 무궁한 조화의 권능인 있는 감로해인을 임의 용지하시어 삼일(三日)만에 병화(兵火)를 진압하시고 만국을 통합하느니라. 사십오공의 수명은 역만년을 지나왔으며 죽음을 정복하고 영생을 얻은 자는 탈검중생(劫劫重生)한 수도자(인간)의 탈을 벗고 하나님으로 거듭난 자)이나라. 총신과 의로운 선비들이 들어가는 금성(金城=천당 극락)은 그 문이 진주로 장식되어 영동하게 빛나며 봉래산의 영원한 생명수가 넘쳐흐르는 길지(지)이다. 거기에는 긴 모래의 골짜기(장사지곡長沙之谷=소사역곡) 사이로 생명수가 흐르는 삼신산 아래의 연화대에서 천년수(千年壽)를 누리며 사는 하늘나라 참인간 종자들이 감로해인을 먹으며 살아가느니라. 호운(好運)이면 꼭 그렇게 맞을 것이요 호운이 아니면 불행이라 그때그때 마다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니 절대 예정될 수 없네.\*

###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74>

#### “마귀의 지능을 능가하는 존재가 바로 구세주”

사람 속에 흐르는 피의 나이는 6,000살이다. 나라는 주체 의식의 마귀 영이 6,000살 먹었다는 뜻이다. 그 6,000년 묵은 마귀가 사람들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기술적으로 꼬여서 결국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다.

사실 이 세상에서 마귀보다 더 지능이 높은 인간은 없다. 그런데 그 마귀의 지능을 능가하는 존재가 있으니

그 존재가 바로 구세주다. 그러므로 구세주가 바로 마귀의 지능을 능가하는 높은 단계에 올랐기 때문에 마귀를 죽일 수가 있는 것이다.

은 우주를 다스리는 마귀 대장을 죽여서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긴자가 되었고 그래서 그 마귀 대장이 앉아 있었던 권좌에는 지금 이사람의 본체가 앉아 있는 것이다.\*

이기는 삶

### 성공이 실패의 원인이다

일류 기업이 과거에 성공을 거두는데 도움을 주었던 제품이나 생산계획, 조직 형태가 이제는 파멸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생존 기업의 제 1법칙은 과거의 성공을 미래의 가장 위험한 요소로 파악하는 것이다. 위대한 성공은 필연적으로 자만을 낳게 되고 자만하는 자는 외부 환경 변화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

인텔 전 회장 앤드 그로브는 '성공은 자기만족을 낳고, 자기만족은 실패를 낳는다.'고 자기만족을 경계하고 있다. 토인비도 '역사의 연구에서 그리스 로마 등 천년만년 영광을 누릴 줄 알았던 강대국들이 얼마 못 가 망해가는 원인은 천재지변이나 외부 침략이 아닌 교만과 안이함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생각되는 경영자들은 마이클 해머 교수의 다음 말을 늘 새겨보아야 한다. "자신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죽은 사람이다. 성공으로 가는 것의 요체는 겸손, 즉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깨달음이다. 세상이 너무도 많이 변해서 어제의 성공 전략이 내일의 실패를 위한 분명한 처방이 될 수 없다."

세계 최고 수준의 경영자들은 자만에 빠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며 독점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적들에게 완전히 포위된 것처럼 회사를 운영한다. '위기는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할 때 찾아온다. 발전이 없는 현재는 자만심에 찬 퇴보이기 때문이다.'(이건희 회장), '성공은 어슬픈 교사다. 현명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에게는 실패란 없다고 확신하게 만든다.'(빌 게이츠) 등

은 자만을 경계하는 좋은 경구다. 성공이란 계속 노력하는 것이다. 어떤 목표에 도달하고 나면 또 다른 목표를 향해 가야 한다. 하나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행복함 마음도 곧 사라져 버린다. 그러므로 성공은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이다. 성공하면 진짜 행복해질까? 아니, 성공의 의미는 무엇일까? 성공을 꿈꾸는 모든 이에게 던져보고 싶은 화두다. 성공은 일순간의 대박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재물이나 입신양명에 관계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평생에 걸쳐 꾸준히 노력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무언가 성공했을 때나 높은 평가 집중될 때야말로 실은 가장 위험한 상태이다. 실패가 없으면 우쭐해서 자만에 빠지게 된다. 자신의 성공 비결을 쓰기 시작할 때 이미 더 이상의 성공의 길은 막히고 내리막길로 향했던 이들이 수없이 많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과 기업은 내가 잘해서 성공했다고 믿게 된다. 그러한 믿음은 새로운 미래에 대한 준비 소홀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실패를 준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전승불복(戰勝不復), 즉 전쟁에서의 승리는 반복되기 어렵다는 사실과, 완전한 승리는 완전한 패배와 같다는 말만 제대로 알아도, 지속적 성공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과거에는 지키려고 성을 쌓았다. 그러나 이제는 지키려고만 하면 더 이상 성장은 불가능하고 성장하지 못하면 결국 가진 것을 모두 잃게 되는 시대다. 지키려면, 그리고 더 키우려면, 내면의 굳건한 성을 부수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축 44회 이슬성신절 영생교 하나님의 성회 승리제단 2024년 1월 1일

정도령 5대 공약 1.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버리겠다. 2. 우리나라로 태풍이 못 불어오게 하겠다. 3. 여름 장마를 못 지게 하겠다. 4. 우리나라에 풍년 들게 하겠다. 5. 남북전쟁 못 일어나게 하겠다.